



사회적
진화론 10
(Social
Evolutionism)

자본주의(2)

사회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사업가들

앞서 다루었던 '사회진화론의 아버지' 스펜서는 "실업자이거나 사회 부담되는 자들은 도움과 자선의 대상이되기보다는 죽는 것이 허락되어야 하며, 그러려면 부적절한 사람들을 제거하고 심하게 다그쳐야 한다"는 식의 끔찍한 자신의 철학을 보여주었다. 덜 적합한 자나 기업은 제거되어야 하며 '합리적 사람'은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냉혹한 진화 법칙은 스펜서의 일관된 결론이었다. 이는 진화의 냉혹한 '생존 법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와 같은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던 성공한 사업가들은 기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들은 부당한 경쟁으로 희생한 자들의 실패를 당연시했다. 몇몇 진

화론자들은 진화론이 사회에 너무 지나치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긴 했지만, 자유 방임주의는 자본가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자제가 과학적으로 지지를 받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많은 크리스천 기업가들은 진화론으로 인해 신앙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진화론과 혼합하려는 시도를 했다. 즉 유신론적 진화론과 같은 ‘타협’을 선호한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미국 사업가들은 의식적으로 사회진화론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자비한 결과보다는 자신의 정보력, 기술, 산업 및 미덕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통한 성공을 추구하였다.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응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김으로써 생존경쟁을 기독교 삶에 정당하게 부여하려고 했다. 이들은 사업 방침을 하나님보다 진화 이론에 물어본 것이다.

앤드류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



누구보다도 사회진화론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킨 사람을 꼽는다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카네기(Andrew Carnegie, 1835-1919, 미국)일 것이다. 강철왕으로 불리기도 하는 그는 원래 기독교 신앙을 추구했으나 다윈의 책과 스펜서를 만나며 자신이 믿던 기독교 신학에 실망하여 신앙을 버리고 자유 방임을 모토로 바꾸어 버렸다. 그가 한 말이다: “다윈과 스펜서의 작품을 통해... 나는 신학과 초자연적인 존재를 버렸고 진화의 진리를 발견했다. ‘모든 것이 더 좋게 성장한다’는 것이 내 모토가 되었다. 인간은 본래 창조된 후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더 낮은 형태에서 더 높은 형태로 상승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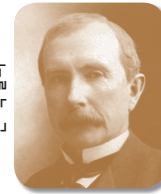
그는 ‘인류의 새로운 종교를 추구하는 자유롭고 계몽된 사상가’라는 그룹에서 진화론을 처음 들었을 때, “합법적인 법(진화라는 자연법칙)이 여기 있으며, 이를 피할 수 없으며... 이 법은 적자생존을 보장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게도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곧 스펜서의 친한 친구가 되었고 그의 영감을 받았다. “나에게 모든 것이 어둡었지만, 스펜서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이 밝아졌다”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에게 스펜서는 신이었다. 스펜서를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다고 추켜세우곤 했다.

카네기는 사회진화론 신조에 대하여 거침없이 시사하며, 적자생존, 인종개선, 존재투쟁과 같은 문구를 가책없이 사용했다. 그는 사업을 심한 투쟁으로 보았고 생존하지 못한 약자를 항상 고통스럽게 했다. 자연은 강한자가 살아남고 약한자가 멸망하는 방식으로 펼쳐진다는 적자생존식 사고를 자연법칙이라고 하며 자신의 사업적 삶에서 취할 모든 행동을 정당화했다. 그는 이런 무자비한 생존 철학을 그의 경쟁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원에게도 적용하였고, 그 방법과 당위성을 자세히 문서화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과 같이 사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회에 ‘적합’하며 따라서 자신의 위치로써 보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겼다.

카네기는 ‘생존을 위해서는 사업을 진화론에 맞추어야 한다’고 하며 진화 법칙을 무시하는 것은 생물계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멸종으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은 근면, 지성, 절약 및 절제에서 나왔다고 했지만, 이는 분명 바른 주장이 아니다. 그는 불행한 계급이나 부적절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돈을 바다에 버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잔인한 행동이 우주의 궁극적인 완성을 이루는 것이라 여겼다.

존 록펠러와 헨리 포드

존 록펠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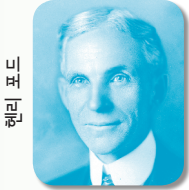
사회진화론을 기업에 적용시키려고 했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람으로 록펠러(John D. Rockefeller 1839-1937, 미국)와 포드(Henry Ford, 1863-1947, 미국) 등을 들 수 있다. 록펠러는 “대기업의 성장은 단지 자연법칙 안에서 하는 것이기에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의 사고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은 기독교를 유지하면서 함께 진화론을 받아들였고, 진화론과 위배되는 창세기를 신화로 취급했다. 한 자신사업가가 브라이언(William Jennings Bryan, 1860-1925, 미국: 당시 원숭이 재판에서 창조론측 변호사였음)의 이름으로 기독교 대학 설립을 돕기 위해 \$10,000를 기부하자마자, 당일 록펠러는 자신을 공개적으로 반 창조론자로 천명했던 시카고 신학교에 \$1를 기부함으로써 이를 바웃으면서 아울러 자신의 돈은 거의 쓰지도 않았다.

미국의 탁월한 자본가 포드도 진화론 속에서 자유 기업체제에 대한 완벽한 근거를 발견했다고 했다. 이들뿐 아니라 많은 자본가들에게 사회진화론적 사고

아직도 진화 개념을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진행형이다. 기업에 대한

많은 책들은 진화 단계를 기업에 응용한다. 진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쟁자들을 삼켜 버리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그들에 의해 삼켜진다고 여긴다.



헨리 포드

는 넓게 받아들였으며, 자신들의 무자비한 사업전술에 궁극적인 정당화를 제공하는 진화 사상을 환영했다. 휴스턴의 석유 사업으로 갑부가 된 할부티(Michel Halbouty, 1909-2004, 미국)도 “자연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적자생존에 원칙에 가장 적절한 자가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며 무자비한 착취를 정당화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석유 산업에 뛰어든 대부분의 석유 사업가들은 진화론적 투쟁을 사업 전략에 적용했다.

아직도 진화 개념을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진행형이다. 기업에 대한 많은 책들은 진화 단계를 기업에 응용한다. 진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쟁자들을 삼켜 버리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그들에 의해 삼켜진다고 여긴다. 대부분의 저자들은 진화론이 개인보다는 기업에 더 잘 어울린다고 말한다. 진화론은 자연과 경제 세계를 이해하는데 좋은 모델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주관하는 거시 경제를 주장한 대표적 주자인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 역시 진화론과 그에 파생된 우생학의 영향을 받았다.



케인즈

진화론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무자비한 자본주의가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서는 아담의 원죄에서 비롯된 인간의 ‘경쟁’ 욕심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가들이 진화 역사에 대하여 확신함으로 끔찍한 결과들이 정당화되었다. 카네기, 록펠러 및 많은 다른 무자비한 자본가들이 순수한 기독교 세계관을 버리지 않았다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자본주의 모습이 그런 비인간적인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진화론의 확산을 염려했던 크리스천 정치가 브라이언은 ‘진화론의 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바른 통찰력이었다. 그는 진화론이 강자가 약자를 몰아내고 죽이는 무자비한 법이며, 자본주의와 군국주의의 과도한 행위를 비난했다. 지난 역사는 그의 우려가 분명히 옳았음을 보여준다. 많은 산업가들에게 진화론은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다.

공산주의자들과 무자비한 자본가들 모두 공개적으로 기독교의 핵심에 반대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좌파 공산주의자와 우익 무자비한 자본주의자 모두 반 창조론자였으며 서로를 비판하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론에 대하여 만큼은 단합해서 반대했다. 이는 모두 진화론을 수용함으로 인해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이 믿는 바처럼 동물들이 그렇게 무자비한 생존 경쟁이나 적자생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지금의 피조물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창 3:14, 17; 롬 8:19-22) 심하게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실제로 무자비한 적자 생존보다는 평화로운 모습이 훨씬 일반적이다. 실제로 적자생존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으려 한다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생존경쟁이나 적자생존이 과연 각 생물의 종류를 변화시킨 적이 있는가? 결코 없다! 즉 경쟁은 진화의 매커니즘도 아니며 가능성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도 아니고 이를 인간에게 적용해야 할 근거는 더욱 없다.

오늘날 모든 학교가 진화론을 사실로 가르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이 진화라고 하는 그릇된 실체조차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세대 역시 내면 깊숙이 위와 같은 진화론적 결정에 동의하려는 잠재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를 지적해야 할 교회이다. 성경을 맡은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신론적 진화론, 점진적 창조론, 다중격변론과 같은 진화 역사와 성경을 타협하는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경쟁을 허용했고 적자를 생존케 했다는 진화 과정을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협이론을 지지하는 자들은 과연 세상의 무자비한 자본주의에 대하여 어떤 근거로 지적할 수 있을까? 과연 교회 안에서 이런 타협 이론들을 주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무엇이냐고 말할까?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참고문헌

Jerry Bergman, Darwin Effect, Master Books, 2014.

Russell Grigg, Herbert Spencer: The father of social Darwinism, Creation 32(4):52-54, 2010.



창조과학탐사

지난 2월 18—24일 생터성경사역원(대표 이애실)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생터성경사역원은 매년 2월 창탐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세도나,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데스 밸리, 알라바마 언덕, 샌디에고, 창조 역사 박물관 등을 돌며, 창조-홍수-빙하시대 등의 일련된 역사를 배웠습니다. 과학적 증거와 성경뿐 아니라, 진화론으로 파생된 교회 안팎의 그릇된 열매까지 다양하게 다루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직접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기에 한 주간의 창탐 일정 내내 진지하고 많은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국 교회에 이슈가 되어있는 진화론과 성경을 섞어서 만든 타협이론에 대하여도 그 문제점과 위험성을 분명히 공감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창탐에는 온누리교회 목사님들과 CGN-TV 팀들도 참석하여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세미나

지난 2월 17일 남가주 사랑의 교회(담임목사 노창수)에서 네 가지 주제로 세미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제는 '기원에 관한 질문', '노아홍수 전후기', '궁금증들', '타협의 거센 바람' 등이었습니다. 주로 지질시대표의 허구를 중심으로 다루어 졌으며, 여기에서 파생된 각 타협 이론들에 대한 과학적, 성경적, 사회와 교회적 문제점도 지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이와 같은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히 이를 통해 다음 세대로 신앙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언급했습니다.



생터성경사역원

지난 2월 17일 LA 소망장로교회(담임목사 백남준)에서 세미나가 이루어졌습니다. '옅기와 창조', '진화론의 영향'을 다루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창조자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며, 아울러 19세기 출판된 찰스다윈의 '종의 기원'으로 인해 20세기 초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울러 지금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시대의 모습을 이해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 1:2)

성경의 창세기 1장 둘째 절 말씀이다. 이는 1절에 창조된 땅(地)에 대한 구체적 묘사이다. 1절은 ‘지(地)’라는 한자로 2절은 한글인 ‘땅’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로는 둘 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지구 에레츠(erecs)이다. 영어 성경도 둘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earth), 우리말 성경도 모두 ‘땅’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 땅에 대해 개역개정 성경에서 ‘혼돈과 공허’로 번역한 것은 다소 해석적인 면이 있다. 이는 실제로 ‘물질의 형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며 비어있다’는 표현으로 중립적인 묘사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드러낸 보기에 좋은 모습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첫째 날 창조 사역 가운데 빛을 만드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능하시며 선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며, 이것이 창조 사건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여 주위가 매우 어둡고 깊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포텐셜(고에너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때 깊음은 깊은 물을 의미하는데, 홍수 심판 때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창 7:11)에 등장하는 단어다. 즉 지구는 처음부터 물이 존재하는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다. 이는 곧바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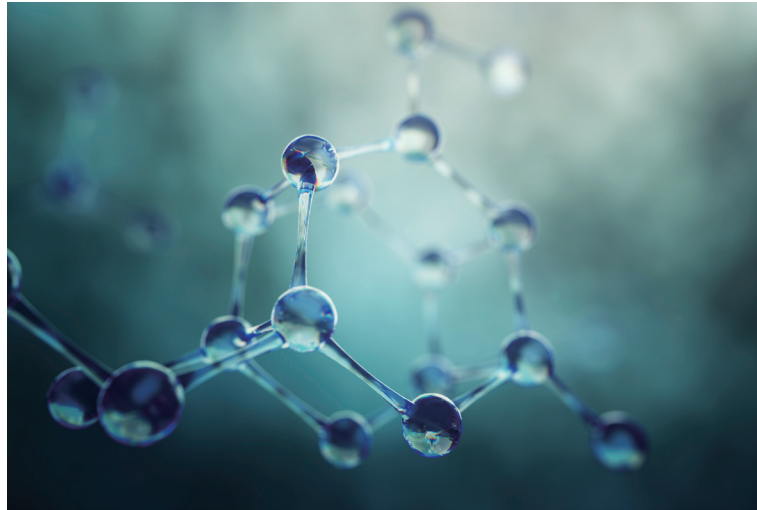
성경에서 ‘혼돈과 공허’로 번역한 것은 다소 해석적인 면이 있다.

이는 실제로 ‘물질의 형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며 비어있다’는 표현으로 중립적인 묘사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드러낸 보기에 좋은 모습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하시며 물을 의미하는 ‘수면’이 언급되어 이를 뒷받침한다. 앞으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 받을 사람이 살게 될 지구를 감싸며 창조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진화를 믿는 과학자들은 지구가 처음에는 뜨거운 불덩이에서 수십 억년 시간에 걸쳐 점차 식으며 결국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변했다고 상상한다. 이런 생각은 단지 태양이 뜨겁고, 지구 내부가 뜨겁기 때문에 지구의 과거도 그랬을 것이라는 편견에서 나온 것이다. 반면에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말한다. 지구는 처음부터 물과 함께 물의 지구(watery earth)로 창조된 것이다. 어떤 면에서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인지하고 알 수 있는 성경에 언급된 첫 물질이다.

물은 잘 아는 것처럼 화학식이 H₂O다. 즉 물 분자는 두 개의 수소(H)와 한 개의 산소(O)가 결합되어있다. 여기서 물에 대한 어려운 화학적 성질을 논하고자



하자는 것이 아니다. 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물질이 아니란 뜻이다. 우리가 잘 아는 물질세계에는 수소, 산소, 핵, 양성자, 쿼크, 미립자 등... 훨씬 더 단순한 것들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계 없이 바로 물을 만드셨다. 실제로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많고 폭발성이 있는 물질이다. 또한 산소는 우주에서 세번째로 많은 원소로 상대 물질을 산화시키는 산화제로 모든 물질을 태우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물은 수소 두개를 산소 하나가 태워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지난 수세기 입자물리에서 실험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입자물리 세계는 핵, 양성자, 중성자, 쿼크 나 렙톤과 같은 미립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모두가 매우 불안정하다. 그러므로 우주가 이와 같이 간단한 것으로 부터 자연적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어려운 상상이다. 반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는 단순한 것부터가 아니라 '필요한 것'부터 창조하셨다.

자연주의 과학자들은 모든 것을 단순한 것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싶어한다. 복잡한 것부터 되었다면 결국 물질을 초월하는 창조와 그 창조자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화 과학자들은 동식물의 기원이나 우주의 기원에서도 모두

가 이런 선상에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려고 한다. 이것이 진화, 즉 자연주의의 속성이며 한계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과학적 데이터와 증거들은 이와 반대다. 그 간단한 것은 자연주의자들이 바라는 다음 단계인 안정하고 조직화된 더 복잡한 기능으로 넘어갈 수 없다. 만약 독자들이 지구는 처음에 뜨거운 불덩이로부터 시작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진화론적 지질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에 대한 지질학적 증거는 어떤 것도 없다. 단지 지금의 지구 내부가 태양처럼 뜨거울 뿐이다.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욥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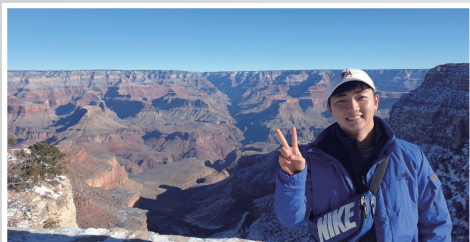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욥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인을 배제하고 이 땅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의도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모습이다.



이동용 박사
항공우주공학





먼저 ITCM으로 불러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7주의 시간동안 7명의 형제 자매가 모여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창조과학을 공부하고 매일 밤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ITCM에 오게 된 계기는 친형의 권유였습니다. ITCM을 결정하기까지 몇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창조과학에 대해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과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스스로의 생각으로 인해 같은 신앙을 가진 주변 사람들과 창조과학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매번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조과학이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창조과학도 아직 불확실한 이론일 뿐인데 그걸 굳이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에 대해선 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ITCM을 통해 성경을 사실대로 믿고 창조과학을 더 자세히 배우게 되면, 이전에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을 정죄하고 스스로 잘난 듯이 창조과학을 이용하여 교만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창조과학을 배우는 것과 그것을 전하기 위함의 목적이 아닌 성경이 사실임을 깨닫고 성경의 그 어느 한 부분도 타협할 수 없는 사실들을 현재 사회의 모습과 진화론의 영향력을 대조했을 때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왕 노릇 하면서 사람의 생각은 죄로 더러워졌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었습니다.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

는 분인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창조자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셨다는 사실, 복음을 들은 사실, 그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지 새롭게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가진 지식과 젊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다 쏟아야 함을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직접 보게 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24살이 되어 다니던 건국대학교를 자퇴하고 농수산대학교에 재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을 공부하여 건강한 식량들로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ITCM을 통해 제가 가야 할 길에 다시 한 번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삶에서 한 가지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을 통해 나는 더이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제가 있는 대학교,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에게 창조과학을 통해 진화론으로 굳어진 마음을 깨부수고 성경을 가르치며 말씀이 사실임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또한 농업을 공부하면서 창조과학사역의 지평을 더 넓힐 수 있도록 제 분야로 창조과학을 연구하며 최종적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섬기는 일꾼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곳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한국에 돌아와서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한 자들에 의한 간증 소감문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 www.hisark.com 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보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실제로 제 삶에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김은미집사/상해연합교회>

창조과학탐사를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느끼게 되었고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진화론이 스며들어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크고 전지전능하신 종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너무 감사했고, 여기서 보고 느낀것들을 꼭 알려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사용해야겠다고 결단합니다.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나의 복음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느낄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박세리/부산호산나교회>

저는 성경을 믿는다고 했지만 창세기를 온전히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호산나교회에서 창조과학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 머리, 그리고 마음속에

남아있던 진화론이라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부서지고 창세기를 온전히 사실로 받아들일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강의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흔적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승태/부산호산나교회>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게 된 시간입니다. 지천명의 나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어도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기회를 주어 믿음을 갖도록 독려 할것입니다. 수고하신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성율/상해연합교회>

창조과학탐사여행... 젊은이 1부에서 예정된 일정으로 인해 오게 되었지만 너무나도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패러다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주님의 증언을 통해 바라본 미국 땅의 창조의 증거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하고 사실로 다가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

기 위해 애 쓰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통해 복음위에 성경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rejoice하시는 삶이 너무나도 큰 도전과 감동으로 다가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위에 굳건히 세우기 위해 Lordship을 더욱 온전히 세우겠습니다. 주님과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대웅목사_부산호산나교회>

저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번에 인도해 주신 창조과학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 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확립되며 저의 모든 고민들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기도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배운 것들을 항상 기억하며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신 선교사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강온유/부산호산나교회>

큰 세계를 보고 이 때까지 세상의 거짓된 진화론에 갇혀있던 제가 참 진리를 알게 되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소현/부산호산나교회>

2019 ACT Schedule

4/29-5/4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 이재만
5/1-5	창조과학탐사 (CIU), 김낙경
5/6-11	창조과학탐사 (CGN TV), 이재만
5/16-23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5/25-31	창조과학탐사 (서초충신교회), 이재만
6/2-7	창조과학탐사 (대전온누리교회), 이재만
6/8	창조과학탐사 (순회선교단), 이재만
6/10-15	창조과학탐사 (뉴욕인투교회), 이재만
6/17-21	창조과학탐사 (합동신학), 이재만
6/24-7/1	창조과학탐사 (새로운교회), 이재만
7/2-7	창조과학탐사 (선한목자젊은이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